

“8.20 희망 시국대회” 선포 기자회견

사회 : 박원석(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 일시/장소 : 2011. 8. 11(목) 14:00/서울시청 광장

□ 참석자

□ 진행순서

- 기자회견 시작 공지(사회)
- “8.20 희망 시국대회” 취지발언
- 각계 대표발언
 - 노동계 :
 - 시민사회 :
 - 민중진영 :
 - 학 계 :
 - 법 조 계 :
 - 정 당 :
- 기자회견문 낭독 :

■ 820희망시국대회 선포문

대한민국, 희망과 노동의 숨통을 틔우자!

숨 막히는 세월입니다. 일터와 가정엔 불안과 한 숨이 팽배합니다. 국민성공 시대를 약속하며 출범한 이명박 정권이지만, 우리는 불안이 점점 더 일상이 되고 절망이 보편적 미래가 되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마치 우리 사회는 성공의 희망은커녕 언제 낙오자가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절망의 채찍질로 굴러가는 듯합니다. 또 다른 공포정치의 사회가 아닌지 자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한진중공업으로 상징되는 정리해고는 우리 사회의 가장 일상적인 공포와 절망 중 하나입니다. 사람을 배제한 이윤의 성장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해고된 희망의 자리를 또 다른 절망인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채우려는 자본의 계략은 이제 중단돼야 합니다. 특권층과 재벌들의 로비대상일 뿐인 낡은 정치, 친재벌 한나라당 정권에는 그 어떤 희망을 바랄 수 없습니다. 고작 월 1만원, 공무원·교사들의 소박한 정치후원을 범죄로 규정하며 색출과 처벌에 혈안인 반면, 전경련 등의 뇌물로비에는 수사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의 정치탄압은 절망의 미래를 확산시킬 뿐입니다.

20일 개최될 희망시국대회는 우리 사회의 희망의 숨통을 틔우는 연대와 소통, 평화를 모색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특권과 차별을 버리고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길, 해고의 절망을 넘어 일 할 권리와 안정된 일터를 찾아가는 길, 반목과 갈등이 아닌 통합과 연대로 향하는 길,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상식적 민주주의의 길, 이 수많은 희망의 길을 터야 합니다. 그 어떤 폭력도 가로막아선 안 되며, 정치탄압도 있어선 안 됩니다. 그 희망의 길 위에 모여든 이들의 이름은 바로, 국민이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 끼 점심조차 평등하게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논리와 권력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액등록금과 취업난에 알바와 대출, 취업학원을 전전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 약속조차 지키지 않

는 정권은 희망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권과 자본이 내던진 희망을 이제 국민들이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롭게 분노합니다. 고공 크레인 농성으로 생명을 혹사시키는 소금꽃이 될지언정, 희망단식으로 제 목숨을 단축할지언정, 버스티켓 한 장으로 희망을 말하는 우리 국민입니다. 20~21일 만이라도 대한민국에는 용역도 없고 부당한 공권력도 없는 평화의 축제, 소통의 향연이 허용되길 요구합니다. 언론에 대한 권력의 통제 없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자유롭고 공정하게 희망의 전파가 송출되길 요구합니다.

그렇게 희망시국대회는 모든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만남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 노동존중과 평등, 보편적 복지와 민주주의의 확장을 노래할 것입니다. 정부여당과 자본은 국민의 합창에 화답해야 합니다. 당장, 무분별한 정리해고는 철회해야 하고 정책이 아닌 정치탄압으로 유지되는 통치는 중단돼야 합니다. 경영인이든 노동자든 그 어떤 이의 땀이 이윤보다 중요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희망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와 국민, 그 희망의 숨통을 트워야 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20일 희망시국대회 준비위원회는 수만 수백만의 국민들을 만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 노동과 희망의 이름으로...

2011. 8. 11.

820희망시국대회 준비위원회 일동

■ 820희망시국대회 준비위원 명단(413명)

● 종교(41명)

개신교(24명) : 김경호(예수살기 목사), 김동한(예수살기 목사), 김병균(예수살기 목사), 김상근(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성복(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윤(예수살기 목사), 김영철(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 목사), 김종수(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 목사), 김홍술(예수살기 목사), 김홍진(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대표), 남재영(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동의장), 방영식(예수살기 목사), 방인성(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 목사), 백낙운(목사), 성해용(목사/前 건치회장), 양재성(예수살기 목사), 양태윤(전북 기독교협의회 회장), 이종희(예수살기 목사), 이해학(NCC 정의평화위원장), 장창원(예수살기 목사), 정진우(서울제일교회 담임목사/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상임운영위원장), 조헌정(예수살기 목사/전태일재단 이사장/향린교회 담임목사), 최헌국(예수살기 목사/총무), 한상렬(예수살기 목사)

불교(6명) : 법안스님(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정념스님(조계종 정책특보단장/월정사 주지), 정우스님(前 통도사 주지), 지선스님(대한불교조계종), 퇴휴스님(대한불교조계종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효림스님(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대표)

원불교(5명) : 강해운 교무, 김성근 교무, 정상덕 교무(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공동대표), 조성천 교무, 최서현 교무

천주교(6명) : 김병상 신부, 문규현 신부(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송기인 신부, 안충석 신부, 함세웅 신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황상근 신부

● 학계(23명)

강남훈(교수노조 위원장/한신대 경제학과),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김세균(노나메기추진위원회 대표), 김승석(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울산대 교수),

김용익(서울대학교 교수),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희망과 대안 공동대표), 서창원(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충남대 교수), 신진욱(중앙대 교수/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우희종(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서울대 교수), 유종일(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이도흠(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한양대 교수), 이병천(강원대 무역학과 교수), 이옥(덕성여대 교수/전 육아정책연구원장), 이창현(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조돈문(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톨릭대 사회학과), 조원희(금융경제연구소장/국민대 경제학 교수), 조희연(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성공회대 교수), 최갑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서울대 교수), 최영찬(서울대 농대 교수/서울환경연합 공동대표), 최영태(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전남대 교수),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홍성태(상지대 교수/참여연대 집행위부위원장)

● 시민사회(135명)

강봉심(반값등록금실현학부모모임), 강진영(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강호정(반값등록금국민본부(준)), 강희용(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구본훈(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권영태((사)남북물류포럼 사무총장), 권정순(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변호사), 권혜진(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김기식(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남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변호사), 김도윤(반값등록금국민본부(준)), 김동규(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김두수(백만민란 집행위원), 김명신(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김상철(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김석봉(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성호(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김세환(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김양현(전실련/실업극복평택센터 대표), 김영종(반값등록금실현학부모모임), 김은주(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김종남(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종민(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김종욱(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김종철(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준영(복지국가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김태균(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 김태정(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집행위원장), 김혜애(녹색교육센터 소장), 노루귀(트위터 ID, 촛불인권연대), 노혜경(라디오21 진행자/전 노사모 대표일꾼), 문병준(반값등록금실현학부모모임), 문성근(백만민란 대표), 민건동(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박광운(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박규숙(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사무처장), 박영희(전실련/양산노동복지센터 대표), 박용신(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 박용진

(복지국가소사이터티 정책위원/진보신당 부대표),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 박임당(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박재송(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박주미(전실련/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대표), 박홍근(반값등록금실현학부모모임), 배옥병(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배은심(故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백만수(반값등록금실현학부모모임), 백승현(희망과 대안 운영위원장), 성해용(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손우정(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손인범(전실련/익산실업극복지원센터 대표), 손종채(반값등록금실현학부모모임), 송서애경(전실련/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 부대표), 신기남(더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이사장), 신필균(녹색교통 이사장), 안광훈(전실련/삼양주민연대 대표), 안병욱(가톨릭대 교수/전 과거사정리를 위한진실과화해위원회 위원장), 안진걸(반값등록금국민본부(준)), 안호덕(반값등록금실현학부모모임), 양길승(원진녹색병원 원장), 양재덕(전실련/인천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 대표), 염형철(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오병선(반값등록금실현학부모모임), 우원식(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유의선(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윤수근(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윤준하(6월 민주포럼 대표), 이경희(반값등록금국민본부(준)), 이광철(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변호사), 이규재(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명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변호사), 이상림(전실련/인천서해주민센터 대표), 이상수(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터티 공동대표/제주대 의대 교수), 이상호(전실련/실업극복수원센터 대표),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이선희(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준)), 이수정(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이수호(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이승재(반값등록금실현학부모모임), 이승훈(반값등록금국민본부(준)), 이승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시재(환경운동연합 대표), 이시찬(반값등록금실현학부모모임), 이용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우리민족서로돕기 사무총장), 이원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변호사), 이은희(반값등록금실현학부모모임), 이재원(반값등록금실현학부모모임), 이종수(반값등록금실현학부모모임), 이창복(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대표),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이충각(전실련/실업극복인천남동센터 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한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변호사), 이형남(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상임운영위원장), 이형섭(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준)), 이호승(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도위원), 이화열(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 이효동(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장건상(반값등록금실현학부모모임), 장영권(한국미래연대 대표), 장재만(반값등록금국민본부(준)), 전민용(건치신문대표/6월민주포럼기획위원장), 전병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세무사), 전재숙(故 이상림 열사 부인-용산), 정명수(반값등록금실현학부모모임),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정향자(전실련/노동실업광주센터 대표),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혜신(마인드프리즘 대표), 조성주(반값등록금국민본부(준)), 조형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변호사), 주대환(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주종섭(전실련/여수일과복지연대 이사), 지영선(환경운동연합), 차영민(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청화스님(참여연대 공동대표), 최병모(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장/전 민변회장), 최인규(전실련/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대표), 최재희(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최주영(반값등록금국민본부(준)), 최지현(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최창우(반값등록금실현학부모모임), 최현국(반값등록금실현학부모모임), 최현명(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탁경태(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하성원(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부의장), 하승창('더체인지' 대표), 한대희(시민주권 연대와 소통 위원장), 허상수(민주통합시민회의 상임공동운영위원장), 황성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한양대 법대 교수), 황인성(시민주권 공동대표), 황희남(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민중진영(34명)

김동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승호(전태일노동대학 대표), 김시현(사월혁명회 이사장), 김을수(민족자주평화통일 중앙회 대표), 문규현(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자은(21C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박점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정곤(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박하순(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박희진(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방국진(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배종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배춘실(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손미희(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심호섭(전국빈민연합 공동대표),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유선근(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윤희숙(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문상(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이필두(전국빈민연합 공동대표), 이현대(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전기호(사월혁명회 감사), 정동익(사

월혁명회 상임의장), 조희주(노동전선 대표), 최단옥(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최영준(다함께 운영위원),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황건(사월혁명회 감사)

● 여성(24명)

권미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경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정연(부천여성노동자회 회장), 김태분(경주여성노동자회 회장), 김해정(안산여성노동자회 회장), 김희전(전북여성노동자회 회장), 남윤인순(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준비위원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박오숙(부산여성회 상임대표), 박은정(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 이구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이예교(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이옥선(마산창원 여성노동자회 회장), 이운상(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조여옥(수원여성노동자회 회장), 주경미(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 황영미(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황정아(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황현숙(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 노동(15명)

강승철(민주노총 사무총장),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남상헌(민주노총 지도위원), 노우정(민주노총 부위원장), 단병호(민주노총 지도위원), 박순희(민주노총 지도위원), 이갑용(민주노총 지도위원), 이수호(민주노총 지도위원), 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민주노총 지도위원), 정의현(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정희성(민주노총 부위원장), 조준호(민주노총 지도위원), 천영세(민주노총 지도위원)

● 정당(62명)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 공성경(창조한국당 대표), 광정숙(민주노동당 의원), 권영길(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권태홍(국민참여당 최고위원), 금민(사회당 상임고문), 김근태(민주당 상임고문), 김부겸(민주당 의원), 김선동(민주노동당 의원), 김성진(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영진(민주당 의원), 김은주(진보신당 부대표), 김

재균(민주당 의원), 김정명신(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김진애(민주당 의원), 김진표(민주당 원내대표), 노회찬(진보신당 상임고문), 문태룡(국민참여당 최고위원), 문학진(민주당 의원), 박무(국민참여당 최고위원), 박선숙(민주당 의원), 박용환(사회당 기획위원장), 백재현(민주당 의원), 손학규(민주당 대표), 신석준(사회당 사무총장), 심상정(진보신당 상임고문), 안효상(사회당 대표), 양승조(민주당 의원), 오옥만(국민참여당 최고위원), 우위영(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원혜영(민주당 의원), 유선호(민주당 의원), 유성찬(국민참여당 최고위원), 유시민(국민참여당 대표),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 윤금순(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윤난실(진보신당 부대표), 이강래(민주당 의원), 이광철(前 국회의원), 이목희(前 국회의원), 이미경(민주당 의원), 이상호(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이영순(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용섭(민주당 의원),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이종걸(민주당 의원), 이혜선(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임종인(前 국회의원), 장원섭(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정범구(민주당 의원), 정성희(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정세균(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前 국회의원), 조배숙(민주당 최고위원), 조승수(진보신당 대표), 조영택(민주당 의원), 천정배(민주당 최고위원), 최광은(사회당 정책위원장), 최은민(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홍영표(민주당 의원),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

● 법조(9명)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 김선수(민변 회장), 김진욱(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위원장), 김철준(민변 부회장), 박주민(변호사/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변영철(민변 부산지부), 이광철(민변 사무차장), 이석태(前 민변 대표), 최성주(민변 부산지부장)

● 문화(11명)

김여진(영화배우), 김정현(前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도종환(민족예술인총연합 부회장/시인), 박재동(민족예술인총연합 부회장/화가), 서해성(소설가/교수), 신학철(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화가), 이철수(민족예술인총연합 부회장/판화가), 임옥상(화가), 임진택(소리꾼), 조정래(소설가), 황지우(시인)

● 언론(10명)

고희범(제주포럼C 공동대표/前 한겨레신문 사장), 김유진(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사(아고라오프라인), 서영석(정치평론가), 이강택(언론노조 위원장), 정상모(MBC 이사),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정연주(前 KBS 사장), 최민희(前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허재현(한겨레 기자)

● 부산지역(49명)

강한규(부산민중연대 지도위원), 권용협(평상필름 대표), 김동수(전부산YMCA이사장), 김석준(부산민중연대 지도위원), 김성효(참의료실현부산청년한의사회 대표), 김영진(부산민중연대 지도위원), 김영희(부산민중연대 지도위원), 김인규(부산민권연대 공동대표), 김재규(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종민(21C부산울산경남지역대학생연합/부산대 총학생회장), 김창근(부울경열사정신계승사업회 회장), 김홍술(부산 예수살기 목사), 문영만(부산민중연대 지도위원), 민병렬(민주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 박덕수(전교조 부산지부 지부장), 박오숙((사)부산여성회 공동대표), 박재호(전국민체육공단 이사장), 박정기(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고문/故 박종철 열사 부친), 박주미(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대표), 박철(부산 예수살기 목사), 방영식(부산 예수살기 목사), 배다지(민족광장 대표), 송덕용(진보신당 부산시당위원장), 신영주(통일을여는사람들 회장), 신혜숙(여성인권센터 대표), 안하원(부산 예수살기 목사), 안혜영(부산청년회 회장), 오순희(전국여성노동조합 지부장), 윤대원(부산민중연대 지도위원), 윤영삼(부산민중연대 지도위원), 윤택근(민주노동부산본부 본부장), 이기숙(자치21 대표, 신라대 교수), 이성우(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 이정희(6.15 공동위 부산대표), 이창신 신부(카톨릭 노동상담소), 이태환(민주노동자전국회의부산지부 의장), 임순평(부산민중연대 지도위원), 장영심(부산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장용훈(동주대 교수), 정운용(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정재성(변호사), 정재호(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진희권(통일시대젊은벗 대표), 최광석(부산 예수살기 목사), 최용국(부산민중연대 지도위원), 최인호(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최현옥(통일여성회 부회장), 하성원(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산경남연합 의장), 하원오(부산농민회 회장)

■ 경과

□ 2011년 7월 13일(수)

△한진중공업 청문회 개최 · 조남호회장 처벌 · 정리해고 철회
△교사, 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 중단 · 정치자금법 개정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국민연금공단 단협해지 철회 · 노조파괴 중단 등 요구를
걸고 민주노총 김영훈위원장 및 1000인 희망단식단 대한문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돌입

□ 2011년 7월 24일(일)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85호 크레인 농성 200일을 맞이하여 생명, 평화
그리고 소통을 위한 “희망시국회의 200”을 부산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앞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각계인사 279명 희망시국선언에 참여

□ 2011년 7월 30일(토)

민주노총은 3차 희망버스가 진행되는 부산에서 열린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진
문제 해결, 교사, 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중단 등을 위해 820전국노동자대회와 각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에 “820희망시국대회” 개최를 제안

□ 2011년 8월 3일(수)

야5당 대표들이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및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등 현안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관련 합의문을 발표

□ 2011년 8월 4일(목), 8일(월)

민주노총, 야5당, 민중의힘, 참여연대, 희망버스 등이 820시국대회 개최를 위한 초동모
임을 진행하여 제단체, 종교, 원로, 정당 등에 820시국대회 참가 및 준비위원회 결성을
제안

■ 820시국대회 기획안

1) 취지 및 배경

○ 이명박·한나라당정권의 친재벌, 반노동정책에 의한 실업자 양산, 비정규직 확대,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만연은 극심한 사회양극화를 촉진하며 국민들을 절망과 불안으로 내몰고 있음.

○ 한진의 정리해고 문제가 김진숙 지도위원과 희망버스에 의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총노동 대 총자본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으며, 새롭게 제기된 희망버스는 2008년 촛불항쟁과는 또 다른 형태의 범국민적 저항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였음.

○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친재벌, 반노동정책을 통한 민주노조 무력화를 넘어, 1600여명이 넘는, 사상 유래 없는 교사,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기소, 조중동 등 재벌언론에 대한 특혜, 복지 포퓰리즘을 앞세운 민주주의 유린,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공안탄압 등 온 국민을 실업과 비정규직으로, 정리해고로,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음.

○ 이에, 우리사회의 진보와 개혁,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친재벌, 반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 나갈 범국민적 전선을 제안하게 된 것임.

2) 주요의제와 목표

(1) 한진문제의 평화적 해결

- 정리해고 철회!
- 김진숙지도위원과 사수대의 무사귀환!
- 친재벌, 반노동정책의 폐기!

(2) 주요현안문제 해결

- 교사, 공무원의 헌법적 기본권인 정치적 기본권 쟁취! 정치탄압 중단!
- 언론의 공정성 회복! 조중동 방송 특혜저지! 언론자유 수호!
-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실현! 오세훈 민주주의 유린 심판!

3) 820희망시국대회 슬로건 및 콘셉트

대한민국, 숨통을 트라

- 1Scene. [전국노동자대회] “희망과 노동의 숨통을 트우자”
- 2Scene. [희망시국대회] “숨 쉬라 희망이여”
- 3Scene. [군중행진] “길을 트라”
- 4Scene. [철야난장] “말을 트자, 난장을 트자”
- 5Scene. [연대와 약속] “새세상을 열자”

4) 820희망시국대회 개요

- (1) 명칭 : (가칭) 한진문제 평화적해결! 친제벌, 반노동정책 폐기!
이명박 · 한나라당 정권심판! 희망시국대회
- (2) 일시 : 2011년 8월 20일(토) 17:00 ~ 21일(일) 오전
- (3) 장소 : 서울시청광장(안) / 광화문 일대
- (4) 주최 · 주관 : (가칭) 820희망시국대회 준비위원회

<시간대별 주요 흐름>

- 1부 : 친제벌, 반노동정책 폐기! 이명박 · 한나라당 정권심판!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 8월 20일(토) 17:00 ~ 18:30
 - 장소 : 서울시청광장
 - 조직목표 : 3만명
 - 주최 · 주관 : 민주노총
 - 컨셉트 : “희망과 노동의 숨통을 트우자”

- 주요내용 : 친재벌, 반노동정책 중단

정리해고 철회

노조파괴, 정치탄압 중단

※ 각 정당별 또는 가능한 조직은 정당연설회, 사전대회 등을 배치하여 진행한후
19:00 시국대회로 집결토록 함.

○ 2부 : 한진문제해결! 친재벌, 반노동정책 폐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심판! 희망
시국대회

- 일시 : 8월 20일(토) 19:00 ~ 21:00

- 장소 : 서울시청광장

- 조직목표 : 10만명

- 주최·주관 : 820희망시국대회 조직위원회

- 컨셉트 : “숨 쉬라, 희망이여”

- 주요내용 : 희망과 연대를 말한다. 한진문제의 평화적 해결

교사, 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중단

언론공정성복원, 조중동방송 특혜저지

교육희망, 아이들에게 보편적 무상급식을

○ 3부 : 평화의 행진

- 일시 : 8월 20일(토) 21:00 ~ 22:00

- 기조 : 평화와 소통! 한진문제 정권이 나서라!

- 주최·주관 : 820희망시국대회 조직위원회

- 컨셉트 : “길을 터라”

- 주요내용 : 불통의 차벽, 통곡의 벽

너희의 폭력을 고발한다(용역, 검경, 국정원)

평화의 길을 터라(통일)

○ 4부 : 희망의 콘서트

- 일시 : 8월 20일(토) 22:00 ~ 02:00

- 장소 : 광화문 일대 또는 서울광장

- 주요내용 : 록, 정치 콘서트, 예술과 문화의 난장

- 주최·주관 : 820희망시국대회 조직위원회
- 컨셉트 : “말을 트자, 난장을 트자”
- 주요내용 : 다양성과 자율의 어울림 마당
예술과 문화의 난장
심야의 록 콘서트, 정치 콘서트
수다난장 “나는 꿈수다”

○ 5부 : 희망과 연대, 그리고 약속

- 일시 : 8월 21일(일) 09:00
- 장소 : 서울시청광장 또는 한진본사
- 주최·주관 : 820희망시국대회 조직위원회
- 컨셉트 : “새세상을 열자”
- 주요내용 : 연대와 승리의 결의
이명박, 한나라당 심판!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